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1년 11월 25일(목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작성과	신성장산업유치과
담당	과장 김연주, 바이오헬스케어팀장 임대화, 담당 김희정(032-453-7654)

“박남춘 인천시장, 독일 싸토리우스 회장과 송도 시설투자 협의” **요아킴 크로이츠버그 회장 접견...3억불 투자 후속 진행 상황·세부계획 등 논의** **박시장, “송도가 바이오의약 원부자재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”**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25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독일의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인 싸토리우스사(社)의 요아킴 크로이츠버그(Joachim Kreuzburg) 회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.
- 이날 만남은 지난 3일 싸토리우스사가 인천시 등과 송도국제도시에 3억불 규모의 바이오의약 원부자재 시설투자과 관련한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진행 상황과 세부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.
- 박시장은 “인천 송도가 싸토리우스의 아시아 주요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한 최고의 선택”이라며 “송도가 바이오의약 생산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수급에서도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- 싸토리우스는 지난해 11월 송도 내 바이오의약 원부자재 제조·연구개발 및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1억불 규모의 시설투자를 골자로 하는 투자의향서를 인천경제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달 초에는 시설투자 규모를 3억불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산업부, 복지부, 인천시 등과 함께 체결했다.

○ 1870년 독일에서 설립된 싸토리우스는 생명과학 분야 연구 및 공정 관련 제품, 장비 등을 공급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 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이오 연구·공정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이다. 60개 이상 국가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임직원 1만600여명에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3조2천억원에 달한다.

○ 싸토리우스는 송도에 일회용백*, 세포배양배지**, 제약용 필터***, 멤브레인****등의 생산시설을 건립해 전 세계 수출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바이오의약 공정 분야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도 추진, 국내 기술이전 및 연관산업 동반성장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.

* 일회용백 : 세포, 바이러스 등을 배양하거나 바이오의약품의 정제에 사용하는 일회용백(bag)

** 세포배양배지 : 배양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필요한 물질을 넣어 혼합한 것

*** 제약용 필터 : 의약품의 불순물과 유해균을 제거하는 필터

**** 멤브레인: 특정 성분을 선택적으로 통과시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막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9:30)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